

# [시론] 코로나19와 백신,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한 백신은?

기계설비신문 | 승인 2021.06.07 06:00 | 호수 76 | 15면



박진철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우리 인류의 역사는 팬데믹과 함께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의 팬데믹으로는 흑사병, 홍역, 콜레라, 스페인독감 등을 들수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팬데믹들은 인류문명의 발달과 의료기술, 공용위생 및 설비 시설의 개선으로 20세기 이후 발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한편 21세기 들어와서는 과학과 의료기술은 더욱 발달하였고 특히 최첨단 위생 관련 설비시스템들이 우리 생활 깊숙이 접목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 등의 팬데믹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같은 원인중 하나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거론되고 있다. 즉 기후변화로 고온 다습한 환경이 늘어나면서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이를 매개하는 박쥐 등의 서식지가 넓어졌다.

특히 항공산업의 발달로 바이러스 이동시간과 거리가 급격히 줄어들어 전 지구에 새로운 팬데믹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어느덧 발병된 지 1년 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다행히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감염자의 증가 수치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 조만간에 다시 예전의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 지구 평균기온이 1.5°C 이상 상승되지 않도록 2030년, 2050년까지 전 세계 탄소배출량을 대폭 줄이지 못한다면, 기후변화를 계속 방치한다면, 팬데믹의 위험은 더욱 증가되어 세계적인 재앙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는 지난 2020년 제50회 지구의 날에서의 교황의 경고를 무심코 지나쳐서는 안된다. 즉 “신은 항상 용서하고 인간은 때때로 용서한다. 그러나 자연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구를 더럽힌다면 그 결과는 매우 참혹할 것”이라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구 오염에 대하여 심각히 경고하고 있었다.

최근 우리사회의 중요한 키워드는 탄소중립이다. 특히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은 우리가 지구와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백신은 필수적이다. 이미 탄소중립을 해결하기 위한 건물에서의 백신요소는 많이 언급되고 있다. 패시브하우스, 신재생에너지, 제로에너지건물, 그린리모델링 건물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일반 팬데믹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전파속도가 빨라 무섭게 느끼고 있지만 기후 변화 팬데믹에 대해서는 단순간에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수치로도 나타나지도 않으며, 그 움직임이 서서히 반응하여 위험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어 그 대응과 방어에 매우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백신개발에는 임상단계를 고려하여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이 걸리는데 이번 코로나19 백신개발은 전례 없던 빠른 속도로 이뤄졌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팬데믹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재앙을 늦추려면 태양력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기반시설과 제로에너지 및 패시브와 액티브의 고효율의 설비기술 등을 건물에 적극 활용하는 그린리모델링 등의 백신개발을 우리도 빨리 도입해야 하고 서둘러 준비해야겠다.

기후변화 팬데믹에 대한 백신을 우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시간이 없다. 더 늦기전에 하루라도 빨리 기후변화 백신(탄소중립, 제로에너지건물, 그린 뉴딜 및 그린리모델링 등) 접종을 시작하자.

